활력향연 06

활력향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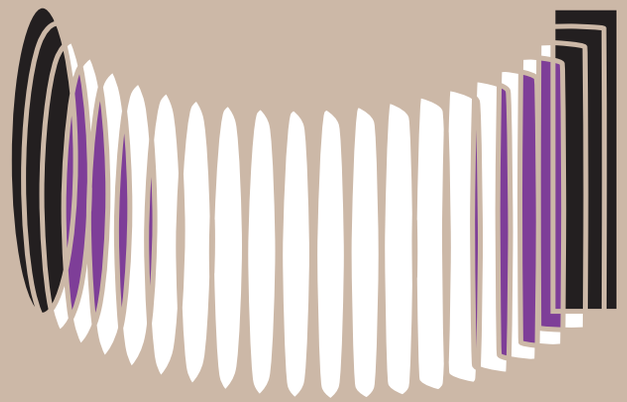
06 이 한

활력향연
06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페미니즘 운동 내 남성의 역할과 활동 고민

이 한



NPO

NPO

활력향연

06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페미니즘 운동 내 남성의 역할과 활동 고민

목차

0. 들어가며 : 남성 페미니스트 동료를 찾습니다. ····· 07

1. 연구개괄 ····· 13

1)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 14

2) 연구 방법과 과정 ····· 19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23

1)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한계 ····· 24

(1)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 ····· 24

(2) 페미니즘 실천 ····· 26

(3) 한계 ····· 27

2)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현황 ····· 29

3. 인터뷰, 집담회 분석 : 남성 페미니스트 발견하기 ····· 31

1) 페미니즘 계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그리고 조력자 ····· 32

(1)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 32

(2) 친밀한 관계에 있는 페미니스트 조력자의 도움 ····· 34

(3) 진보적 가치 ····· 37

(4) 무관심 그룹 ····· 39

2) 페미니즘 실천 : 자신과 주변의 변화 ····· 40

(1) 자기 자신의 변화로 출발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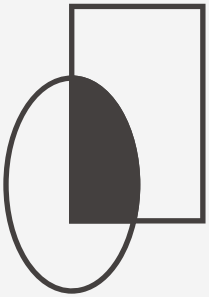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2)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는 페미니즘 실천 ····· 43

(3) 적극적인 활동 ····· 46

3)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는 갈등과 고민 ····· 47
(1) 위치성을 둘러싼 고민과 죄책감 :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 48
(2) 고립에 대한 두려움 ····· 52
(3) 시행착오들 ····· 57

4.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제언 ····· 61
1) '속죄 페미니즘'과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 62
2) 정치운동 공동체의 필요성 ····· 67

5. 나가며 ····· 71
참고 문헌 ····· 76



0. 들어가며

: 남성 페미니스트 동료를 찾습니다.

활력향연 2019

0. 들어가며 : 남성 페미니스트 동료를 찾습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01]을 계기로 처음 페미니즘을 내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그 이전에도 사회문제와 정치, 사회운동은 꾸준한 관심사였다. 다만 교과서와 교재에서 배우는 이야기,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사연일 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당시 함께 어울리던 학교 친구들 손에 이끌려 도착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내가 일평생 모르고, 또 외면하고 살았던 세상을 마주했다. 그 날 이후로 조금씩 페미니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운 좋게도 주변에 함께 고민을 나눌 친구들이 있었다.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02]'라 부를 만큼 우호적인 시대라는 점에서도 한결 수월하게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었다. 쏟아져 나오는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비단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고와 행동 양식까지 바꾸는 인식론이라는 걸 체득했다.

2017년 활동 반경을 넓혀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전신)이라는 페미니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책을 읽고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은 이어져 2018년부터는 이름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하 남함페)'으로 바꾸고 독서 모임에서 활동

01)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살인사건. 불특정한 여성을 노린 범죄로 사건발생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났다.

02) 페미니스트이자 문화평론가 손희정 선생님의 표현으로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하던 시기를 나타낸다.

모임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그간 읽은 책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反)사이버 성폭력 캠페인, 성폭력 2차가해 규탄 집회 등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갔다.

2019년, 이른바 '젠더갈등'의 주역으로 청년 남성이 부상했다. 그것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다소 과장되고 조장된 갈등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혐오와 반(反)페미니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젠더 인식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음[03]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도 활동과 고민이 답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 할 자격이 있을까?'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온 날이면, 샤워를 하다가, 이불에 누워서도 수 십 수백 번 씩, 창피함에 몸부림 쳤다. 남성이 페미니즘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활동과 역량에 비해 과분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내가 다른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 게 아닐까 죄책감이 들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조력해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도 이것이 겸손을 빙자한 도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시 성별 이분법적으로 여성에게 역할과 책임을 전가하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 어딘가에서 갈팡질팡 했다.

언어 역시 부족했다.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한결 불편해진 세상을 향해 목소리 내고 싶어도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묘한 이

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7월, 11월 현안 조사 결과, 20대 여성 중 각각 48.9%, 42.7%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반면 20대 남성은 각각 14.6%, 10.3%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9.1.15.)

질감이 느껴졌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수행하는 개인, 특히 다른 남성을 향한 비판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효과적일까?'라는 물음과 함께, 이 말들이 나와 다른 남성을 구분 짓는 타자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고민에 빠졌다. 특히, 젠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면죄부[04] 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더 많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자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남성들 역시 차별을 받고 있으니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별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남성이 이를 시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으로 '조건 지어진[05]' 두 존재가 어떻게 하면 마주 앉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손잡을 수 있을지. 특히, 지금까지 페미니즘 논의를 애써 외면하고 또 손쉽게 이미 만들어진 언어만 빌려 써왔던 남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한계를 맞아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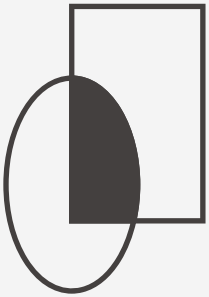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인터뷰와 집담회로 남성 페미니스트를 모으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금까지 파편화 되어 있던 남성 페미니스트가 동료를 발견하고 언어를 찾아 능동적으로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나아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한 축으로 남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

04) 이 표현은 남함페 활동가 박종수님의 표현으로,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자신의 여성혐오적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다른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태도를 전시, 고발하며 자신과 다른 남성을 구분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이다.

05) 이 표현은 남함페 활동가 김선해님의 표현으로, 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 연구를 초석 삼아 남성과 페미니즘 사이에 더 많은 연결고리와 고민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1. 연구개괄

1)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2) 연구 방법과 과정

1. 연구개괄

1)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2018년, 남함페가 활동 모임으로 영역을 넓히고 단체명을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에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남성도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기존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 등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다른 조사와 단어를 조합해도 묘하게 느껴지는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았다.[06] 결국 내린 결론은 '남성'과 '페미니즘'이라는 둘 사이의 거리감을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극복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활동을 통해 위화감을 조금씩 지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페미니즘'과 '남성' 두 단어 사이의 위화감은 페미니즘 역사에서 남성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남성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사회에서 억압의 주체이거나 최소한 체제의 방관자였다. 그 까닭에 '남성'과 '페미니즘' 사이 괴리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성차별과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07]"으로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지고 성별을 망라한 지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2세대 페미니즘 물결과 함께 남성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08] 이들 중에서는 페미니즘과

06) 자세한 과정과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한, 〈한국, 남자(ft.줄쓰큰)〉, (2019.01.26.) (https://brunch.co.kr/@bomgks/16)

07)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9쪽

08) 박윤수 기자, 〈여성학을 비판하는 시선들〉, 여성신문, 2007.7.20.

궤를 같이 하며 성차별에 반대하고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방향이 있었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남성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며 남성의 권리 옹호에 초점을 둔 반(反)페미니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09]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좋은 아버지' 운동을 시작으로 남성의 성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억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10]을 비판하고 가정생활에 적극 참여, 육아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으며,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11] 하는 등 넓게 보면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끝내 두드러진 활동과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페미니즘과 결합하지도 못했다. 결국, 한국의 '남성운동'은 남성의 피해를 부각하며 페미니즘 활동에 반기를 드는 반(反)페미니즘 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지다 기록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다시 '남성'과 '페미니즘'이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를 맞으면서다. 2000년대부터 계속되던 온라인 여성혐오는 임계치를 넘은지 오래였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함께 반격이 시작됐다. 이른바 '메갈리아의 등장'이다. '미러링'을 무기 삼아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여성혐오를 맞받아치는 여성의 등장은 남성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여성들이 저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리 없다는 현실부정, '드센 여성'으로 구분 짓기, 그런 방식의 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은근한 협박 등.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남성의 마찰음이 이어졌다.

---

09) 박윤수 기자, 〈여성학을 비판하는 시선들〉, 여성신문, 2007.7.20.

10)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175쪽

11) 박윤수 기자, 〈여성학을 비판하는 시선들〉, 여성신문, 2007.7.20.

'남성'과 '페미니즘'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조명한 모습이다. 한 언론사[12]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0대가 꼽은 우리 사회 갈등 의제로 '젠더 갈등'이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고,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실으며 바통을 이어받았다.[13] 한 주간지는 3부작 기획으로 남성 청년들의 반(反)페미니즘 행보를 실었다.[14]

이렇게 남성 청년들의 불만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자 자연스레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부각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보고서에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젠더 이슈로 진단하고 각종 기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15]하며 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여당은 급하게 남성 청년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16]했고 이에 질세라 다른 정당에서는 워마드와 여성가족부를 악의 축으로 삼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남심 잡기에 집중하는 행보[17]를 보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정부와 정당, 언론까지 합세하여 남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의 원인을 추측하며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12) 권기석 권중혁 기자, 〈세대별 갈등 요인, 청년 '성(性) 장년 '빈부' 노인 '이념' 꼽아〉, 국민일보, 2018.12.10

13) 이태윤 기자,〈"20대 남성도 약자···성차별 덕 본건 페미니즘 찾는 4050"〉 중앙일보, 2019.01.30.

14) 시사인 604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2019.4.16.) / 시사인 605호, 〈우리는 페미니즘과 싸운다〉, (2019.4.23.) / 시사인 606호, 〈20대 남자현상 왜 생겼나〉, (2019.4.30.)

15) 박다해 기자, 〈"페미니즘 무장한 20대 여성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한겨레, 2019.2.27.

16) 권란 기자,〈민주당, 20대 남성들과 간담회..."역차별 안 돼" 뿔난 남심 달래기〉, SBS 뉴스, 2019.1.30.

17) 이지영 기자, 〈하태경 "진선미, 워마드·여가부 둘 중 하나 없애는 결단내려야"〉, 중앙일보, 2019.1.4.

시작했다. 같은 시기, 불법촬영 이슈를 둘러싸고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도 미진한 대처로 불만을 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적극적인 반(反)페미니즘 행보다. 대표적으로 '안티페미협회'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이하 당당위)', '한국성평화연대' 등이 있다.
각각의 단체는 다른 탄생 배경과 활동 시기, 정치적 성향, 목적, 전략을 가진다. 하지만 페미니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여 페미니즘 단체들의 전략과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反)페미니즘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확산하며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한다. 그 결과 현재(2019년 9월 11일 기준) '안티페미협회'의 네이버 카페 회원 수는 6,000여 명, '당당위'의 네이버 카페 회원 수는 약 9,600명에 달한다. '한국성평화연대'는 1,800여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남성과 페미니즘은 서로 반의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드물지만,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문화 자원 수혜를 받아 페미니즘을 접한 남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페미니즘을 배우고 실천하며 고민한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서한영교, 2019),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최승범, 2018) 등)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작은 모임과 단체도 등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2차 가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사이버 성폭력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했다.[18] 미약하지만, 남성 페미니스트는 남성 연대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지지자로 목소리 냈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와 활동이 앞서 조명되는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적 행보에 비해 미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성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 진영 안팎으로 그 존재와 활동을 의심받았다. 실제로 남성 중에 페미니즘 행보를 걷다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전 과오를 드러내며 실망을 안긴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설령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배움과 자신의 반페미니즘적 경험에 괴리를 느끼며 도피하거나 숨어버리기 일쑤다.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지배라는 시대적 배경을 극복하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남성 스스로도 위의 물음은 큰 숙제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 페미니스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존재론적 가능성에 회의를 가졌다. 한줌의 남성 페미니스트는 유니콘[19]이 되어 상상 속 존재로 그려지거나,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버팔로[20]'가 되어 손가락질 당했다. 그리고

18) 박다해 기자, 〈'미투'가 깨운 젠더 감수성…'반쪽'들 변화는 시작됐다〉, 한겨레, 2019.1.30. 김태규 기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성집단 내부고발이 '남페미' 역할"〉, 투데이신문, 2018.10.27.

19) 남성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남성의 존재가 상상 속 동물 '유니콘'만큼이나 희귀하고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은어

20) 남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페미니즘을 한다고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은어.

대부분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연구는 투명인간이 된 이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 부터 살펴보고,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파편화되어 있는 존재를 모아서 기록하는 일은 이들의 고민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증명할 것이다. 나아가 페미니즘 활동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특히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 대상이기만 했던 남성들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지 지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남함페 활동은 더듬거리며 투명인간이 된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는데 급급했다. 이번 연구는 이들을 호명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이 분투하던 존재를 서로 마주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점이었던 남성 페미니스트가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며 나아가 입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과 과정

이 연구는 R.W.코넬의 〈남성성/들〉[21]에 나오는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뷰, 집담회를 통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분석했다. 현재 남성의 페미니즘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가 미미하고 남성 페미니스트 역시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찾고 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 위해 인터뷰가 필요했다. 집담회는 이렇게 발굴한 남성 페미니스트 개인을 연결하기 위한 자리로, 비단 이번 연구에서 참여자들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함페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쌓아온 고민, 담론을 공유

21)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향후 연구 이후에도 집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성 페미니스트의 담론을 형성,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남성 페미니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총 9명을 심층 인터뷰했고, 약 20명의 남성 페미니스트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인터뷰와 집담회 기록은 한국의 남성 페미니스트가 어떤 고민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내용을 코넬의 이론과 비교 분석하여 한계와 의미를 발견하고 향후 활동에 제언을 남길 것이다.

연구 참여자 인터뷰는 각 3인 씩 세 그룹, 총 9명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남성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남성 페미니스트 지지자' 그룹으로 적극적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이론과 페미니즘 단체 활동을 지지하는 남성들이다. 세 번째는 '무관심 그룹'으로 페미니즘을 따로 공부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며 반(反)페미니즘적인 단체 활동 역시 지지하지 않는 그룹으로 기존 1, 2 그룹과 대조를 위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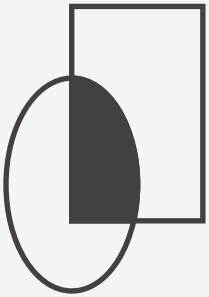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표1] 인터뷰 참여자

그룹 구분	인터뷰 참여자	나이	직업	거주지
남성 페미니스트 활동가	A	26세	시민단체 활동가	서울
	B	23세	시민단체 활동가	서울
	C	25세	대학생	서울
남성 페미니스트 지지자	D	29세	대학원생	경기도
	E	26세	대학생	경기도
	F	32세	공무원	서울
무관심 그룹	G	27세	취업 준비 중	서울
	H	28세	대기업 사원	서울
	I	30세	전문직	경기도

인터뷰는 2019년 6월 말에 시작해 7월 초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페미니즘 활동 여부에 따라 주요 질문 '페미니즘 계기', '페미니즘 실천 방법',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조화 했다. 인터뷰는 최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속기를 작성 했다.

집담회는 2019년 8월 3일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반 동안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남성이 페미니즘을 접하며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거나 페미니즘 활동을 실천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를 총 4개의 팀으로 나눠 토론했고, 각 팀에 1인의 토론 촉진자를 배치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오래 고민하였다.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는 과정이 자칫 성별 이분법을 공고화하고 조장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남성'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으로 여겨지고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로서, 그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바, 다소 한정적일 수 있겠으나 이번 연구 대상은 법적 성별 남성으로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남성 페미니스트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한계

2)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현황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이 연구의 대부분 이론적 기반은 R. W. 코넬의 〈남성성/들〉[22]을 참조하였다. 오랜 시차와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단일하고 본질적 요소가 아닌 복수의 가변하는 요소로 인식을 확장하여 남성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존 베이넌의 〈남성성과 문화〉[23]를 참조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세미나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24]에 나온 조사 등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1)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한계

코넬의 〈남성성/들〉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페미니즘을 접한 나라의 남성 페미니스트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였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고찰해본다.

(1)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

코넬의 〈남성성/들〉에서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두 가지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강인함을 목격한 경험이다.

---

22)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2013. 7. 19.)

23) 존 베이넌,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10. 7.)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 (2019. 4. 18.)

"젠더 질서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실천의 경험은 가부장적 관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섯 중 다섯 사람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자의 강인함을 가까운 곳에서 맞닥뜨린 경험을 들려줬다. -중략- 여자들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이미지는 각자의 경험과 공명할 수 있다."[25]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페미니스트로 태어나는 남성은 없다. 가부장주의와 성별이분법이 기본값인 현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자연스레 '남성되기'를 체득한다. 허나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목적의식적으로 주어진 것을 전유하기도 한다.[26] 이때 '여성의 강인함을 맞닥뜨리는 경험'은 남성이 페미니즘을 접하는 데 거부감을 줄이고 기존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전유하여 페미니즘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다른 계기로 코넬은 '환경운동'을 이야기한다. 많은 정치운동 중, 환경운동을 짚어 이야기한 까닭은,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27] 때문이다.

① 평등의 실천과 이데올로기
② 집합성과 연대의 강조
③ 개인적 성장의 실천과 이데올로기
④ 유기적 전체성의 이데올로기

민주적이며 권위를 향해 저항하고, 경쟁하기보다 함께 연대하기를 지향

25)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188쪽
26)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184쪽
27)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190쪽

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상호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한다. 환경운동이 가지는 위와 같은 특징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한결 수월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페미니즘 실천

페미니즘을 접한 남성들은 삶의 경험과 배움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 죄책감은 '자신을 주류 남성성에서 분리하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28]하는 페미니즘 실천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죄책감에서 시작한 변화의 실천은 '남성적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작게는 여성과 교류에 있어 선택권, 발언권을 양보[29]하고 스스로, 또 주변의 성차별적 행동이나 발언을 억제[30]한다. 크게는 직업 경력, 취업을 포기한다. 기존 성차별과 남성연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에 일조하지 않기 위함[31]이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이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위 과정을 통해 남성들은 평소 느끼지 못했던 다채로운 감정과 느낌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한다.[32] 1970년대 이러한 활동에 '에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부장제에서 억압의 주체로

28)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195쪽
29) 위의 책 195쪽
30) 위의 책 197쪽
31) 위의 책 195쪽
32) 위의 책 197쪽

서 느끼는 죄책감, 남성을 향한 적대, 여성 운동에 완전히 종속되기 [33]를 특징으로 한다.

1960년대 말에는 '전통적 남성 역할'에 비판적 태도를 취한 남성 운동[34]이 등장했다. 이들은 '남성성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젠더 관계에서 이성애 남성 역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상처받은 이성애 남성을 치유하고자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며 활동을 시작했다면, 이들은 남성의 피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안도감을 주고 개인적 해결책을 도모했다.

이렇듯 남성의 페미니즘 실천은 다양한 갈래로 지속 됐다. 대체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도되었고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소규모에 불안정하였으며 일부는 반페미니즘 운동으로 변질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기존 공고했던 남성성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변화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한계

남성과 페미니즘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에게 페미니즘은 멀기만 하다. 다만 이를 본질적인 한계로 남기기보다, 위태롭지만 의미 있는 과정으로 기록하고 또 다른 시도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 실천에 어떤 어려움,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3) 위의 책 208쪽

34) 위의 책 302쪽

먼저, 이 남성들의 페미니즘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남성의 감정과 표현, 태도, 여성과 상호작용에 몰두하고 불평등한 구조의 원인인 '제도', '가부장제' 등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운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35]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개인의 좋은 덕성을 쌓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에페미니즘'과 '남성성 테라피' 역시 같은 한계를 보인다. 성차별로 인한 여성 착취, 남성성 강요 등 문제의 원인을 개인 차원으로 환원하여 제도적 개혁이 아닌 개인적 노력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치적 동원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하고 접근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더 큰 문제는, '남성성 테라피'의 피해를 경쟁하는 서사, 즉 '남성도 젠더 구조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오히려 가부장적 젠더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남성성 테리피'는 전통적 남성의 성역할에 반기를 드는 등,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결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피해 서사에 매몰되어 가부장제와 젠더권력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남성들 간의 동질성,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무엇'을 찾으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만다. 이는 기존 남성성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나, 결국 현대화된 남성성을 찾는 일에 불과하며, 가부장적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그 외에도, 남성들의 반성차별 정치는 사회적 기반의 부족으로 소규모, 단기간에 그쳤고 여성 운동, 퀴어 운동과 같은 대규모 동원이 어려운 한계

35)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194쪽

를 보였다. 또한 남성들의 운동과 단체는 언제나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진영 양측의 적대적 태도를 감수해야[36] 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남성의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의 위태로운 행보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반페미니즘 진영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이들의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해석하고 성취를 깎아내리고자 했다.

2) 한국, 남성과 페미니즘 현황

한국에서 남성과 페미니즘을 둘러싼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에서 질문지 조사 방식을 통해, 전국의 만 19~5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분석했다.[37] 이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차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성차별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은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으로 페미니즘에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성별 규범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반감을 가진다. 두 번째 유형은 '온정적 가부장주의'로 여성을 약자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기존의 성별 규범을 답습하는 태도를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반성차별주의'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편견, 인식이 낮으며 여성을 가부장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38]

---

36)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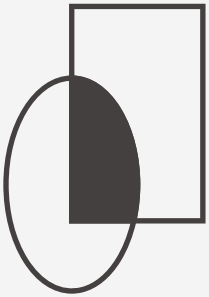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 (2019. 4. 18.)

38)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유형 구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20대의 50.5%, 30대의 38.7%는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인다. 또한 각각 23.8%, 37.1%는 온정적 가부장주의 성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요인을 살펴보면,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남초 커뮤니티 방문 경험', '페미니즘, 여성운동 정보원(성차별적인 온라인 정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20, 30대 각각 25.7%와 24.3%, 즉 4명 중 한 명은 '반성차별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성평등 관련 개별 이슈에 대한 대답은 더욱 흥미롭다. 20대 42.5%, 30대 48.8%가 '여성 고정관념·차별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여성혐오 심각'에 대한 응답도 20대 40.4%, 30대 49.6%로 나타났다. 여성 차별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미투(Me Too) 운동의 경우 20대 44.9%, 30대 56.6%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크게 이슈가 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 이른바 혜화역 시위도 20대 31.1%, 30대 46.3%로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조사 결과에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남성 중, 반성차별주의 성향이 성차별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 25%는 반성차별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성평등 관련 이슈에 관한 응답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더 커진다. 지금까지 2030세대 남성 청년은 성차별을 견인하는 단일한 세대군으로 조명했다. 하지만 조사에서 드러난 반성차별주의 성향의 남성 청년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남성청년을 그저 '반페미니즘' 하나로 묶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과소대표 되어 온 반성차별주의 남성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인터뷰, 집담회 분석

: 남성 페미니스트 발견하기

1) 페미니즘 계기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그리고 조력자

2) 페미니즘 실천 : 자신과 주변의 변화

3)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는 갈등과 고민

활력향연 2019

3. 인터뷰, 집담회 분석 : 남성 페미니스트 발견하기

앞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알아보았다면,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와 집담회를 진행, 분석했다. 앞서 이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와 페미니즘 실천방법,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은 어려움을 중심으로 담았다.

1) 페미니즘 계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그리고 조력자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남성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을까?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난 이후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우리는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남성에게 페미니즘을 전달하는 방법을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가장 많이 등장한 계기 중 하나는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페미니스트 6인 중, 3인이 공통적으로 위 사건을 꼽았으며, 집담회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 간접적인 계기로 위 사건을 이야기했다.

강남역 사건 이후 확 달라졌어요. 원래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차별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 페미니즘 활동이 유별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강남역(사건발생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명백한 여

성혐오를 '묻지마 살인'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묻지마 살인 피해자의 90%이상이 여성임을 알게 되고, 강남역에 모인 여성들의 움직임이, 그 움직임이 별게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죠.**

(인터뷰 참여자 C)

인터뷰 참여자 C는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페미니즘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는 강남역 사건 당시부터였다고 이야기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미러링 등 페미니즘 관련 정보를 볼 때에도 여성들이 받는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행동,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저항을 보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당시 '여성혐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싶고. 주변에서 동생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길래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배울 게 많았고 (페미니즘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문제였는데 그땐 미처 알지 못했죠. 차근차근 단계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 알아가는 중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D)

인터뷰 참여자 D 역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꼽았다. D는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 갖게 되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은 많은 여성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여성들은 이를 그저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을 거부하고 '여성혐오'로 이름 붙이고자 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붙은 무수히 많은 포스트잇은 여성들의 각성과 연대 등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냈다.

당시 많은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의 분노와 행동의 맥락을 공감하지 못했다.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개별화 하여 개인을 단속, 처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자 했고 이를 둘러싼 마찰음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언론, 사회의 시선과는 다르게, 이 갈등은 성별로 깔끔하게 양분되지 않았다. 사건이 이슈화 될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동시에 의문을 갖는 남성이 등장했다. 물론, 불편함만 느끼는 남성에 비해 단연 소수일테고, 공감의 정도가 여성들에 비해 낮을지 몰라도 분명 이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남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 친밀한 관계에 있는 페미니스트 조력자의 도움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페미니즘에 입문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등장한다. 이는 연인,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 비교적 수평적이고 애정과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이다.

> 2015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주변에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페미니즘 학회도 있었고, **당시 친한 친구 중 한명이 스스로 에코페미라고** 정체화 하더라고요. **그 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란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중략- 또 16년도 여름, 한 여성분과 **연애를 하면서 당시 이야기를 굉장히 많**

이 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집에서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고요. 애인이 직접 겪은 피해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시선이 훨씬 많이 꽂힌다던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C)

애인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애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때마침 학교에서 여성학 교양 과목이 생겨서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을 접하게 됐고 관련 책과 영화를 보며 관심이 커졌어요.

(인터뷰 참여자 E)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친구를 통해 페미니즘이 뭐고 왜 나왔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여자 친구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이후예요. 대체로 옆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서 페미니즘을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관심 갖는 이슈가 페미니즘이라면, 그걸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 참여자 G)

인터뷰 참여자 C, E, G를 비롯하여, 집담회 참여자들 또한 한 사람 이상의 페미니즘 조력자가 주변에 존재했다. 이 조력자는 연구 참여자가 페미니즘에 관심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참여자 옆에서 함께 페미니즘 논의를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많은 여성, 퀴어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차이를 보

이는 부분이다. 많은 여성, 퀴어 페미니스트가 자신의 삶과 사회 구조의 불일치에서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이를 해석하는 언어로 페미니즘을 접한다. 반면,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타인을 경유해서 페미니즘을 접한다. 실제로 반(反)페미니스트 뿐만 아니라 많은 페미니스트가 이 지점을 우려, 지적한다.

'타인을 위한 운동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론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남성 페미니스트가 주의하고 동시에 해소해야할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의해야할 질문인 까닭은, 현재 우리사회 젠더 권력 지형에서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자신의 정체성 정치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 "권력의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에 해방 운동의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없다. -중략- 이성애 남성의 의식 고양은 여자들이나 게이 남성과 달리 집단적 긍정과 동원을 끌어내지 않았다. 초기의 통찰에서 얻은 성과는 주변화와 분열로 이어졌다.[39)]"

코넬이 지적하였듯, 여성과 퀴어에게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억압과 성차별에 대항하는 해방운동으로 작용했다. 반면 이성애 남성은 무엇에 대항하고 어디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자칫 현재 우리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젠더 권력과 위치를 반성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고 '남성도 힘들다'는 이야기만 공허하게 외치게 될지 모른다.
동시에 해소해야할 질문인 까닭은, 실로 하나의 운동이 타인을 위해 지속

39)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1쪽

되기란 어려우며 자칫 그러한 태도가 시혜적으로 권력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이 페미니즘을 '관계 맺기'에서 시작한다. 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여 페미니즘을 자신의 문제로 전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보적 가치

인터뷰와 집담회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로 나온 이야기들 중, 유의미한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보았다.

> 2016~2017년 쯤, 그전까지 페미니즘을 잘 몰랐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죠. 그 때, 저희 **단체에서 약속문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체 구성원 대상 강연을 했어요. 강연에서 테이블 토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된통 혼났어요. 마지막에 들은 얘기가, 모르면 말을 하지 말고 배우란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입을 열기보다 듣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책도 읽으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죠.
>
> 단체 자체가 페미니즘에 진지한 고민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 소양이 필요한데, 나는 그 소양이 없음을 알게 된 거죠. **이 공동체를 좋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했기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
> (인터뷰 참여자 F)

F가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상호간 존대어를 사용하며 약속문을 만드

는 등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바, F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고자 페미니즘을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탈권위적인 공동체는 그 자체로 기존 권력(권위주의, 서열주의, 연령주의, 가부장제 등)에 저항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한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역시 페미니즘을 접하며 경험하는 저항을 줄이는 요소가 된다.

> (페미니즘에 대한) 처음 인상은 낯설었죠. 처음은 아마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접했을 텐데, 낯설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왜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잖아요. 주류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
>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도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약자 편**인 것도 있고. 페미니즘 이슈도 같은 이유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지 마냥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
> (인터뷰 참여자 G)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가치, 인권, 노동 감수성 등 진보적 가치는 페미니즘을 접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G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배운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의 기본적 가치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정보를 접할 때에도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권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수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무관심 그룹

남성 페미니스트와 대조분석을 위해 무관심 그룹에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하나의 계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어서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이슈, 인상을 함께 물었다.

> 주변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 이후에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죠.**
>
> -중략- 요새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반감부터 드는 것**으로... 일정 부분에서 그런 행동들을 보다보니 **그 단어가 나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굳이 그런 말(페미니즘)을 쓰고 싶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
> (인터뷰 참여자 H)

> 계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언론,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대학교 다닐 때, 페미니즘 수업이라기보다 윤리 같은 걸 토론주제로 접했어요. -중략- **요새 페미니즘을 듣는 경로는 언론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
> (인터뷰 참여자 I)

이들은 언론과 유튜브, 주변인을 통해 페미니즘 정보를 접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접한 페미니즘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단편적이며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주변인 중에도, 페미니즘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 습득할 수 있는 조력자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주변인이 더 많아 페미니즘 관련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표현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 페미니즘이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것 또는 부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의 페미니즘 계기를 살펴봤다.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대학 수업, 시민단체 특강, 독서 모임, 책, 집회 참여 경험 등 상대적으로 밀도 높고 지속적인 창구가 있었다. 이는 페미니즘을 접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위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중시된 진보적 가치가 발견된다. 상호평등하고 수평적이며 탈권위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페미니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페미니즘 실천 : 자신과 주변의 변화

페미니즘은 인식론이다.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보는 방식은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기존에 인식하지 못하던 권력 관계를 느끼고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이 불편해진다. 모르고 있었을 때라면 몰라도, 한 번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 변화를 마주해야한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상에서,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달라진 인식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접한 남성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평소 어떻게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을까.

(1) 자기 자신의 변화로 출발

많은 남성이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부터 변화시키는 것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했다.

> **조심스러워졌어요. 화법에서부터 행동까지.** 이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폭력적인 면, 차별적인 말들이 숨어있었는데, 페미니즘을 알고 나니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
> (인터뷰 참여자 D)

> **말하는 걸 조심하게 됐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할까.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찾아 쓰게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반성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가만히 있는 게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작은 것부터 이야기 해보고 있어요.
>
> (인터뷰 참여자 E)

인터뷰 참여자 D, E는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자신의 언어습관부터 행동,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이르는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사회의 젠더 구조 아래 남성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 특히 여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조심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 페미니즘을 접하고 긍정적으로 변한 게 있다면, **제가 저에 대해 더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을 했고요. -중략-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집담회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까지 제가 되게 남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나는 그냥 나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죠. 소위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집담회에서)

집담회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가장 좋은 점, 긍정적인 변화'를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생기는 생각의 변화 자체를 긍정하기도 하고 기존 성별 고정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긍정하기도 한다.
특히 페미니즘을 통해 자기 자신과 기존 관습,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변화를 시도한 경험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다른 변화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페미니즘을 인식론으로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다.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에야, 여성, 여성으로 패싱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부끄럽다는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여성을 대상화, 타자화 된 존재 이외의 어떤 것으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페미니즘 접한 이후로 '다들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성 집단에서 만연한 여성혐오 문화 중 하나로, 여성은 흔히 남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런 자원을 충분히 획득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의 남성성은 의심받으며 남성 집단의 인정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은 일견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남성의 여성혐오 문화를 고발함과 동시에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2)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는 페미니즘 실천

페미니즘을 접한 이들은 자연스레 자신 주변을 변화하고자 했다. 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행동이기도 했고 동시에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 **관계 맺기로 실천해요.**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 커뮤니티의 **안 좋은 문화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
> (인터뷰 참여자 B)

인터뷰 참여자 B는 자신이 소속된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혐오 문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그 집단을 탈출하는 것으로 저항을 표현했다.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하는 것으로 남성 집단 내 연대를 공고히 하는 문화에서 더 이상 여성혐오 문화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균열은 더 많은 남성이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남성문화에서 벗어나는 창구가 되며 더 나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에요. '남페미'라 정체화 하는 것도, 나는 결국 '한남'이라고 정체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양가적인 지점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 노하우라고 한다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손절[40]하지 않는 것. 타자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가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의 '빻은 점[41]'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보면서 영향을 조금씩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 참여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함께, 남성 연대 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자기 성찰은, 여성혐오 문화를 생산해내는 사회구조에서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고히 분리하고 과거의 일, 타인의 일로 치부하기보다 자신이 해결해야할 몫으로 감내하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여성혐오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끔 시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려고 해요. 불편한 발언이 나오는 자리에서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거죠. -중략-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해요.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걸어요.

(인터뷰 참여자 F)

인터뷰 참여자 F처럼 꾸준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집담회에서도 위와 같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았

40) 주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가진 주식을 판매한다는 뜻의 '손절'에서 파생된 인터넷 은어로 관계를 끊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41)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은어

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남성에게 발화 권력이 집중된 이상, 이를 다른 남성들의 혐오 표현과 문제적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 **일터에서 안전한 공동체 만들려고 해요.** 다른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페미니즘)를 일부러 먼저 꺼내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 책모임과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먼저 꺼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이야기해주면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
> (인터뷰 참여자 A)

인터뷰 참여자 A는 자신 주변 몇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 자체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그 방법으로 자신이 모임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선점하여 이야기 꺼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집담회에서도 나왔다.

> 가능하다면, 너무 두렵지 않다면, 어디 가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그게 가지는 긍정적 함의, 힘이 있잖아요? -중략-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선언하는 게 편해질 것 같거든요. 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페미니스트 선언하기'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운동 방법이다. 모임 내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면서 페미니즘을 한 번 더 이슈화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공간에 존재할지 모르는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연대할 용기를 주며 또한 그 모임의 구성원이 반(反)페미니즘적인 발언을

할 때 제지하겠다는 사전 경고가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개인이 애써 이런 용기를 내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겠다.

(3) 적극적인 활동

개인과 자신 주변의 변화를 넘어,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남성 페미니스트 활동가 또한 존재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관련 의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꾸리거나 소속되어 활동했다.

> 서울 동북권에서 **퀴어 페미니스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모임이나 하는 책모임이에요. -중략- 두 번째는 동북권에 퀴어 관련 자원을 만들려고 해요. 동북권에서 찾고 만들어보자 해서, 책모임 이외에 관계모임을 만들고 일단 사람을 모아서 조직화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약 스물 두 명 정도가 모였어요.
>
> (인터뷰 참여자 A)

> 2017년부터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탈가정 상태이거나 위기에 있는 여성을 지원해주는 단체예요. 자원활동가를 수시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
> (인터뷰 참여자 B)

인터뷰 참여자 A와 B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 외에 페미니즘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없는 자원을 쪼개어 각자의 방법으로 가늘고 길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회

복하고 자신의 가치에 공감하는 동료를 찾을 수 있으며 더욱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활동은 비단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만이 아니다.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 까닭에 이들의 활동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독서, 공부 모임을 꾸리는 등 자신의 삶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띤다.

3)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는 갈등과 고민 : 위치성을 둘러싼 고민과 죄책감, 고립에 대한 두려움, 시행착오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의 삶을 '빨간 약을 먹었다.'고 표현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키아누 리브스)에게 주어진 선택지인 '빨간 약'과 '파란 약'에서 비롯된 비유다. 빨간 약을 먹으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파란 약을 먹으면 이 모든 일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선택을 위해 손을 뻗은 네오에게 선택지를 건네어준 모피어스(로렌스 피시번)는 다시 한 번 신중할 것을 경고한다. 한 번 선택한 이후에는 돌아갈 수 없으며, 진실을 선택한 대가가 결코 달콤하고 편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삶과 빨간 약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비유다. 세상에 만연한 성차별과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 여성혐오를 목도하는 일은 결코 반가울 수 없다. 남성 페미니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 지점을 통해서 활동 제언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다.

(1) 위치성을 둘러싼 고민과 죄책감 :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사회 구조와 문화로부터 완전히 영향 받지 않는 개인으로 존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마찬가지 이유로 가부장제와 여성혐오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많든 적든 성차별적 문화와 제도를 재생산하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의 젠더 권력 구조에서 남성은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자신의 가해, 방관의 역사를 인지하게 된다. 그로 인한 죄책감과 내적 갈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 분리하기.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남자는 가해자이고 한남이라는 얘기들. 그런 용어들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살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책을 읽고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구조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성차별적 구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라는 게 생긴거 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
> (인터뷰 참여자 E)

인터뷰 참여자 E는 이 과정을 '분리하기'라고 표현하였다. 이 때 '분리'는 비단 다른 남성을 타자화 하는 분리가 아닌 비판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는 분리로 이해된다.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 비판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가부장제 하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에 매몰된다.
자칫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식으로 이해할 경우, 충분한 성찰에 이르지 못하고 성차별이 가부장제 구조의 문제로 발생함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페미니즘을 개인의 좋은 덕성 쌓기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어렵게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에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기까지 많은 장벽이 남아있다. '남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남성이란 역할에 기대되는 차이 때문에, 남성으로 살면서 쌓아온 수많은 여성혐오적 역사와 습관들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단어를 지양하고 있어요. **정체화 하는 순간 부패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집담회에서)

책으로 배운 것과 내 삶에 녹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속도가 달라요. 책을 읽을 때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동은 (예전과) 비슷하고. 또 그 불일치를 내가 알기까지 어려웠어요.

(인터뷰 참여자 D)

어릴 때부터, 남성끼리 있을 때 호모 소셜[42]의 중심을 로망으로 삼았어요. 운동 잘하고 소위 '간지 나는' 남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 사이에서 나눈 성차별, 여성혐오적 문화가 생각나요.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 과거가 피해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남성은 가해나 방관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된다고 하더라고요. 죄책감이 커요. 어떻게

42) 같은 성(SEX)끼리 갖는 강한 유대관계를 뜻하는 말로 특히 남성 간 연대, 동성사회성을 의미한다.

이걸 아무렇지 않게, 모르고 살았을까. 이걸 지우고 싶어지지만, 사실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인터뷰 참여자 C)

위 내용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하며 드는 다양한 감정의 충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하였듯, '페미니스트 선언하기'를 통해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 편으로 남성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선언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 까닭은 인터뷰 참여자 C와 D의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깨닫게 된 자신의 가해, 방관 경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부장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칭할 자격이 있을까 되묻게 된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공범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으나 그것이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에 많은 남성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저항한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한 동안 길티형(죄책감에 시달리는 유형)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길티에 깊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참회하는 모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회만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순교자 같은 종교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영원히 참회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80년 동안 참회만 하면서 죽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회가 중요한데, 참회만 해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고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곳에 오게 됐어요.

(집담회에서)

위 집담회 참가자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까닭을 이야기한다. 과거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반성하며 자신의 생각, 행동을 성찰하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 자괴감이 들 때가 많죠.
>
> 모든 남페미가 그럴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한남이더라고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중 노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나도 도움을 받으니까요. 자괴감이 들 수밖에요.
>
> **일터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발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요.** 가끔,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면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나 관심을 잠깐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또 남성이기 때문이잖아요. 여성은 생존 문제니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놓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끔 그게 나를 너무 몰아붙여요.
>
> (인터뷰 참여자 A)

내적 갈등은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 대신 남성의 자리에서 때로 현재 주어진 발화 권력을 활용하여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성의 성역할을 빌려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성역할 그 자체를 전복할 수 있을까? '남성의 역할'에 국한되어 활동하는 방식은 남성의 성역할을 재생산하고 도리어 남성의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일조한다. 현재 젠더 권력 구조에서 남성의 위치성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실천 가능한 페미니즘을 시작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남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실천법과 언어'를 찾는 방식으로는 가부장제라는 권력 구조를 전복하기 어렵고, 보다 시혜적으로 권력을 분배하는데 그친다.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해도 괜찮나? 언제쯤 말을 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페미니스트가 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정체화하기 어렵다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미루고 감히 페미니스트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담회에서)

성별과 젠더권력 차이에 방점을 둔 고민은,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과 활동을 한계 지었다.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자신의 역할을 보조적 위치에 두었다. 남성의 발화 권력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겠으나 이것이 다시 성역할을 재생산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은 사유와 활동을 위축한다.

'차이'에서 '활동'으로 고민의 방점을 옮기고도 사유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이 사유 과정에 남성 페미니스트 개인이 고립되어 있고, 이런 고립이 페미니즘을 다시 충분히 숙고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고민의 몫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고민과도 이어진다.

(2) 고립에 대한 두려움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는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것이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든 혐오로부터 도피이든 혹은 기존 남성연대에서 탈락되는 과정이든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다.

가장 큰 건 외로움이에요. 원래 인간 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성인지)감수성이 별로면 관계를 잇기 어려우니까요.

(인터뷰 참여자 B)

페미니즘 접하는 사람이, 특히 남자가 너무 없어요. -중략- **혼자 있다는 외로움, 두려움이 있어요.** (페미니즘을) 같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페미니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페미니즘 관련) 논의하는 것부터 **내가 남성으로 살고 있으니 고민을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요.** (이성)애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요.

(인터뷰 참여자 E)

인터뷰 참여자 B와 E는 자발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타의로 주변 남성연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은 여전히 큰 장애물이다.
특히 E는 주변에 페미니즘을 함께 논의할 동성 동료가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현재 사회의 이분화 된 성별 구조로 인해 페미니즘 활동에 따르는 고민과 갈등, 활동방법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함께 논의할 동성 동료가 필요하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겪는 어려움은, 95%는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을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과 나쁜 행위를 접하고, **불편함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남페미'로 당사자성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서 이런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다고 생각해요.

(집담회에서)

위 참여자 역시 그런 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겪는 내적갈등 중 상당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여성혐오, 가부장제 사회에서 관성적으로 살아온 만큼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 따른 갈등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감내해야할 몫이다. 다만 이 갈등으로 인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활동이 정체하지 않도록 안전망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민의 깊이를 더하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가 필요하다.

주변적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존 페미니스트 사이에)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기도 하고. 내가 공감하기 어렵거나 머리로는 아는데 겪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인터뷰 참여자 C)

학부 때, 페미니즘 동아리에 갔어요. 20명 중 저 혼자 남자더라고요. 페미니즘을 접한 초창기라 잘 모르는 상태다보니 잘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또 친하지도 않으니까 불편함이 컸죠. 말실수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맨스플레인을 하게 될까봐. 결국 세 시간동안 한 마디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이성애 중심적인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못 친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D)

고립에 대한 고민은 여성 페미니스트와 있을 때에도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민이 더 커진다.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 받을까봐 우려한다. 실제로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기에 이러한 우려는 현실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남용되어 왔던 남성들의 발화 권력에 대한 염려,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차이로 인한 괴리 등이 고립감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여성이 겪는 사회적 피해를 들을 때 내가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그런 것에서 동조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죠. 뭔가 말을 하는 게 가식적인 것 같고 실제로 **나는 그런 상황이 처해있지 않는데 내가 공감해도 되는 건가 싶고요.**

(집단회에서)

여성 지인과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다가 강간욕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너무 회의감을 느끼고 무력해하기에 함께 고민해보려고 이야기 나눴는데, **그 친구에게 '너는 남자라 이해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기에도 어렵고. **"너를 이해 못하고 힘내라고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도 상처인 것 같아요.** 스스로 죄책감도 있고. **여성 페미니스트와 접촉할 때, 그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집담회에서)

위 참가자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사회 젠더 권력 구조의 다른 위치성에

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준다. 다른 성별로 위치 지어지면서 겪는 삶의 형태가 다른 만큼, 공감과 이해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때로 이 차이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진다. 실로 개인 수준에서는 당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드는 무력감과 죄책감, 특히 함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동료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발생하는 격차는 고립의 요소로 작용한다.

> 페미니즘 활동을 하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는 내가 도망가고 남페미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동지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히려 (도덕적 정당성 , 정치적 올바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
> (인터뷰 참여자 C)

> 매번 어려워요. 나의 위치성과 연계되어 있어서.
>
> 굉장히 양가적이에요. 내가 (페미니즘과 관련한) 고민을 계속해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잖아요.** 이 여성 그룹 내지는,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유일한 동인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
> 한편으로는 이 **남성무리,** 이해가 없는 무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무리와 척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내가 이런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제대로 (페미니즘) 활동하는 사람들은 코웃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기도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도태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에요.**
>
> (인터뷰 참여자 F)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기존 자신의 유대관계에서 탈락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남성 연대 해체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남긴다. 이 탈락의 공포와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같은 고민을 나눌 동료를 찾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을 다른 의도로 이용하는 남성의 존재에 대한 염려로 서로의 과거, 사상, 태도를 검열한다. 이는 자칫 서로의 과오와 잘못을 고발하며 개인의 도덕적 순수성, 결백함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비화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사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의 존재는 불가능에 가깝고 개인의 속도와 맥락을 지운 채 고발과 제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도 개인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렵다. 이는 남성 페미니스트 개인의 고립과, 또 다른 남성이 페미니즘을 접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기존의 남성연대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기에 또 다른 남성 연대를 만드는 것을 염려한다.

(3) 시행착오들

페미니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다르다. 기존 삶의 관성에 익숙해서, 방법을 알지 못해서, 페미니즘을 향한 저항이 두려워서 등 성별을 망라하고 많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내 삶에 녹이는 속도가 특히 달라요. 책으로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동은 비슷하고 또 그 불일치를 내가 알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집단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남성이 페미니즘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게 좀 기준점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조할 텐데 없어서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싶고요.

(집단회에서)

위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난 이후에도 직접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앞서 토로한 이유들로 남성의 활동영역과 행동지침이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까닭에 이들의 실천은 더욱 늦어졌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결심을 해서 저도 **호모 소셜에 있었는데 그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중략- 제가 그 호모 소셜에서 나왔지만, **그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린 것은 아닌가?** 발제 듣기 전에는 남성 정체성을 가지고 호모 소셜에 균열 내는 것을 저의 목적을 삼았는데, 그것도 내 남성성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담회에서)

위 집담회 참여자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페미니즘을 실천 하고 있다. 새로

운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지난한 것은 당연하지만 시행착오가 기록, 공유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온전히 개인에게로 돌아간다. 앞서 언급한 고립의 문제 역시 다시 등장한다. 기록, 공유, 연결되지 못한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시행착오는 그만큼 변화를 더디게 한다.

>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은 어려움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
> (집담회에서)

> **백래시를 접할 때 불편해져요.** "너도 페미냐"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럴 경우,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럼 내 생각을 전혀 공유할 수 없게 되지 않나** 생각해요. 나와 전혀 다른 사회적 요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중략- 나와 다른,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아니고, 헤테로가 아니고, 이른바 4년제 상위권 대학 출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영원히 알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건가. 그런 게 고민 지점이에요.
>
> (집담회에서)

남성 페미니스트에게도 페미니즘을 향한 저항이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나 앞서 언급하였듯,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자신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남성을 향해 맞추면서 위 어려움은 불가피해진다. 물론 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갈등을 통해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내고 페

미니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갈등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 페미니스트가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엄살, 혹은 변명만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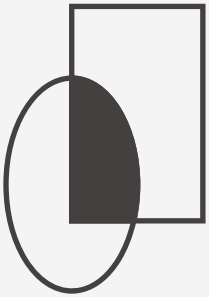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이상 남성 페미니스트가 겪는 갈등과 고민에 대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위치성을 둘러싼 고민과 죄책감이다. 자신의 여성혐오적 역사, 남성이라는 위치성, 활동의 미진함 등을 마주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스스로 활동에 한계를 짓기도 했다. 반대로 이를 동력삼아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난 후, 자의든 타의든 기존 관계에 조정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계를 완전히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남성 연대 유지에 일조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여성 페미니스트와 관계는 이성애 중심 사회의 오해와 젠더 권력 차이로 인한 한계가 걸림돌이 된다.

세 번째는 시행착오다. 페미니즘이라는 인식론은 삶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 삶의 관성으로 인해, 또 남성 연대의 저항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등 삶 전반에 따르는 변화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난하다.

모든 페미니스트들에게 페미니즘은 쉬울 리 없다. 남성 페미니스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고민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4.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제언

1) 속죄 페미니즘 한계에서 벗어나기

2) 정치운동 공동체의 필요성

활력향연 2019

4.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제언

남성 페미니스트가 필요하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동일한 성별을 기반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한다.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는 남성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성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준다. 또한 성차별로 공고하게 유지되는 남성 연대에 내부고발자의 존재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균열을 일으킨다. 더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등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인터뷰와 집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R. W. 코넬의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

1) '속죄 페미니즘[43]'과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44]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앞서 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는 '남성'이라는 자신의 성별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가부장제의 성별 권력 구조 아래서 자신이 누리던 젠더 권력의 부당함을 인지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누리던 젠더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한다. 발화 권력을 줄이는 것도 그 시도 중 하나다. 목소리를 낮추고 여성의 발화에 더 많이 귀 기울인다. 특히 페미니즘 활동 내부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주목이 쏟아질 때, 자연히 다른 여성 활동가들의 발언권을 뺏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페미니즘을

43) 정경직, 최성용, 이아름, 정연,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바꿈, 76쪽
44)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26쪽

접한 이후, 더 크게 느껴지는 성별 권력 격차는 자신의 여성혐오적 역사와 함께 더 큰 죄책감으로 돌아온다. 이로 인해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남성에 비해 피해 당사자의 위치에 가까운 여성 페미니스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조력하는 위치에 멈춰 서기도 한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 발화뿐 아니라 활동전반이 위축된다.

이러한 남성 페미니스트의 죄책감과 조심스러운 태도는 일견 필요하고 타당하다. 지금껏 가려져온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이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위치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여성혐오 역사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현 사회 젠더 권력 구조에서 남성이 자신의 위치성을 파악하고 객관화 하는 일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때 남성 페미니스트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적이다.

첫째, 또 다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해 여성을 타자화/대상화 한다.[45] 위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위치[46] 지우면서 성별 이분법을 고착화하고 발화자 논지의 근거를 성별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한다.[47]

둘째, 활동과 사유를 한계 짓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남성 페미니스트는 자신의 활동을 여성 페미니스트의 보조적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이는 결국

45) 김선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 (2019.06.23.)
46) 정경직, 최성용, 이아름, 정연,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바꿈, 76쪽
47) 김선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 (2019.06.23.)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활동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 그런데 사실 그럼 언제 페미니스트가 될까요? 다른 여성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고민이, 준비가 완성되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깨닫고 **내가 남자여서 선택할 수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여성들만 진정한 페미니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
> (집담회에서)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48]에서 최성용은 이를 남성 페미니스트의 '속죄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 "자신의 가해자로서의 위치와 경험을 '속죄'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속죄 페미니즘은 남성이 스스로를 도덕적 우위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페미니즘의 편에 위치시킴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욕망이며 사유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49]

이는 '타자화'로도 이어진다. 자신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유 없이 여성 페미니스트가 사용하는 저항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해 페미니즘을 면죄부로 활용한다. 또한 페미니즘을 받아들

48) 정경직, 최성용, 이아름, 정연,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바꿈, 76쪽
49) 정경직, 최성용, 이아름, 정연,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바꿈, 76쪽

인 자신과 그렇지 못한 다른 남성을 구분하면서 상대를 쉽게 타자화, 악마화 한다. 이런 타자화로는 애초 남성 페미니스트의 주요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남성 연대 내부에서 균열을 내지 못하고[50] 가부장제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도 가닿지 못한다.[51]

이러한 남성 페미니스트의 태도가 타자화를 통해 도덕적 우월감과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함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와 활동이 미미하였던 까닭에 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언어, 활동 방법이 충분히 숙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3-3장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겪는 갈등과 고민'에서 살펴보았듯 남성 페미니스트는 남성 연대 내부에서 균열을 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남성 연대 유지에 관한 죄책감,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페미니스트가 반(反)페미니즘, 여성혐오 행보를 보이는 남성을 비판, 비난하는 것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페미니즘 실천 방법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효과도 미미하다.

남성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는가? 3장, '페미니즘 계기'에서 살펴보

50) 김선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 (2019.06.23.)

51) 나아가 이런 행보는 갈수록 자극적이고 경쟁적이 되고 있다. 일부 남성페미니스트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여성혐오를 고발, 비판하기 위해 재생산한다. 이 고발, 비판은 여성혐오 행위 가해자를 향하는듯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소비될 뿐이다. 이러한 행동이 커뮤니티 내 결속을 다지는데 필요할지 모르나 앞서 목표하였던 남성연대, 가부장제 균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여성혐오적 글의 무분별한 재생산은 (애초 비판의 의도와는 달리)그 자체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글을 작성하는 남성 당사자는 그러한 공포와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충분한 숙고 없이 공포를 조장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았듯, 남성 역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자원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 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변에 페미니즘과 관련한 영향을 미치고 고민을 공유,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조력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때, 페미니즘을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또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52]에서 마경희의 〈변화하는 남성성과 성차별〉 자료를 보면 20대 남성의 페미니즘 정보 접촉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 '신문, TV,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1인 방송, SNS 등'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한 이들 중, 54.4%, 42.1%가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였다. 반면,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와 '강의, 소모임 활동 등'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경우 63.2%와 50.0%가 반성차별주의 성향을 보였다.[53]

위와 같은 내용은 남성 페미니스트의 활동 방향에 시사점을 남긴다. 남성 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여성혐오를 제지, 고발하는 활동을 넘어 문화 자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앞서 속죄 페미니즘에서 활동과 사유가 정체하고 자신과 타인을 쉽게 가르는 한계[54]에 맞닥뜨린 남성 페미니스트, 또 자신의 언어, 활동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

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 (2019.4.18.)

5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 (2019.4.18.)

54) 김선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 (2019.06.23.)

던 남성 페미니스트에게 지표가 된다.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 페미니즘 활동을 찾을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문화자원을 가꾸기 위해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남성 페미니스트는 현재 젠더 권력 관계에서 '남성'이라는 성별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조건 지은' 사회적 요인과 젠더 권력 구조 전반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젠더 권력 격차의 토대인 성별이분법에 의문을 갖고 균열을 내며 동일한 성별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믿음을 기반에서부터 흔들어야 한다.

2) 정치운동 공동체의 필요성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가 자신의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다. 3-2장 '페미니즘 실천'에서 살펴보았듯 자신의 태도와 언어를 변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반성하며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주변 관계를 조정하거나 내부에서 성차별을 제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신의 삶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은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의 거부감을 낮추고 대중화 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벨 훅스가 그의 저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우려하듯,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의 그림자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킨다.'[55]

남성 페미니스트의 인식, 태도 변화와 주변 관계에서 페미니즘 실천은 분

55)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37쪽

명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56]임을 견지할 때, 이들의 실천은 개인 삶의 형태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정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남성 페미니스트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고립감'과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3-3장에서 지적하였듯, 고립은 남성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위축하고 사유의 발전을 저해한다. 남성 페미니스트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도모하는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성의 페미니즘 정치와 운동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이 활동은 비단 남성의 피해와 남성성 수행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자조모임에 그쳐서는 안 된다. R.W.코넬은 〈남성성/들〉에서 "남성성 테라피"[57]라는 이름으로 이를 경계한다. 1960년대 말, 미국에 기존 남성 역할을 벗어던지고 더 섬세하며 감정표현이 풍부한 남성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던 남성 운동이 등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에는 친-페미니즘적 성향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잃어버린 남성성 되찾기를 주창하는 등 페미니즘 기조에서 벗어났다. 게다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개인적, 심리적 문제에 천착하는 한계를 보였다. 남성 운동은 기존 여성, 소수자 해방 운동 모델과 동일할 수 없다.[58] 가부장적 구조 아래, 남성이 경험하는 피해와 어려움은 코넬의 표현에 따르면 "이익의 조건"[59]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수의 동원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우며[60] 근본적 원인인 가부장제

56)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9쪽
57)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02쪽
58)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1쪽
59)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56쪽
60)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1쪽

구조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현대화하는데 그친다.[61]

남성들의 반성차별 정치는 남성 사이 동질성을 강조하기보다 '차이'를 발견하고 남성연대에 균열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 남성 페미니스트는 기존 남성 연대와 기꺼이 불화해야 한다.[62] 기존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기존 관계 내 갈등과 마찰은 관계가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동인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불화는 남성 연대의 허구적인 동질성, 나아가 가부장제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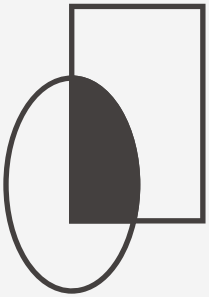
반성차별 정치운동 공동체는 이 과정에 더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위와 같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페미니스트 개인을 양성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남성 페미니스트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성장에 기여한다. 현재 젠더 구조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갈등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활동이 아닌 '남성도 함께하는' 정치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남성성 테라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맹의 정치"[63]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코넬이 이야기하는 '동맹의 정치'는 남성성의 정치가 계급적, 종족적, 사회적 운동 등 젠더 정치 내·외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남성 집단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젠더구조에 균열[64]을 낸다고 말한다.

---

61)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208쪽
62)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1쪽
63)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4쪽
64) R. 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344쪽

따라서 이 정치운동 공동체는 성별을 망라하고 구성되어야하며, 활동 역시 남성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젠더 이슈 전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젠더 이슈 외부와 결합하여 다양한 공동 행동을 도모하고, 남성 집단 내부의 격차를 드러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5. 나가며

5. 나가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뜻과 의지가 비슷하며 함께 활동할 여력을 낼 동료를 찾는 일이었다. 이번 연구에도 위와 같은 사심을 잔뜩 담았다. 인터뷰와 집담회를 통해 곳곳에 파편화되어 있는 남성 페미니스트를 발견하여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마주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럼 앞으로 동료를 찾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또 흩어져 있던 남성 페미니스트가 혼자 외롭게 활동을 지속하다 포기하거나 자조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중에 남함페 활동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어려움을 맞더라도 누군가 이를 지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냥 낙담하고 자조할 수만은 없어 부족하지만 연구에 뛰어들었다.

한국 남성 청년들이 언론, 미디어에 위태롭게 소비되고 있다. 남성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이해와 만나 공명(共鳴)하고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지우는 방식으로 커지고 있다. 이를 멈추기 위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남성성을 주목한 오랜 이론적 논의가 있었고 최근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주목한 선행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우리의 현재 상황은 미국의 1970~80년대 즈음과 유사하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늘 압축적인 성장을 기록한 역사가 있다. 다소 우려하자면, 미국 역사가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반면교사'를 통해 배울 점은 취하고 주의할 점을 미리 알 수 있으니 기대와 희망을 버릴 순 없다.

인터뷰와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희망이 마냥 허언이 아님을 증명한다. 남성 페미니스트의 계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개인을 탓해왔는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를 만나기 위해 문화 자원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들여야 한다. 이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활동방향을 터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도 이어진다. 저절로, 혼자서, 태어나고 존재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는 없다. 이들이 활동하고 쉬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공동체가 필요하다.

특히, 더 이상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활동과 사유를 제한하며 다른 남성을 저격하는 방식으로 활동 하던 것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인한 착취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스스로의 섹슈얼리티, 성정체성, 남성성 등에서부터 숙고하여 나아가 남성 간 균열을 발견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과 반성차별 정치운동을 도모하며 활동의 확장에 힘써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의의를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활동에 필요한 문화자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나아가 국내의 남성성은 어떻게 다른지 등. 이번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기 위해 쓰여 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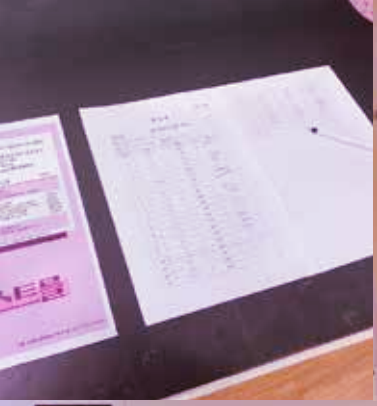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운영진이 함께한 덕이다. 연구는커녕, 글 한쪽 제대로 쓰지 못한 활동가의 의지를 복 돋아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전망을 그

려 주었다. 이 연구가 지금껏 받아온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세상에 이런 활동도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남아 다음 활동가, 연구자에게 조금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R.W.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2013
-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2018
- 존 베이넌,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정경직, 최성용, 이아름, 정연,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바꿈, 2019
-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넷페미史〉, 나무연필, 2017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그런 남자는 없다〉, 오월의봄, 2017
- 서한영교, 〈두 번째 페미니스트〉, arte, 2019
- 최승범,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생각의힘, 20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 (2019.4.18.)
- 김선해,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할〉, (2019.06.23.)
- 나루, “남성 페미니스트의 ‘가족’ 상상하기”, 페미니스트 연구웹진 Fwd, 2019.8.7. https://fwdfeminist.com/2019/08/07/vol-2-4/?fbclid=IwAR0PmW8286WzcbENoXtcdo0V9ajzeHbvlvFB1AtZKmv6sY6l8gqJ7HVslvk
-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홍미리, “‘청년진보논객’ 데이트폭력 폭로로 달궈졌던 6월의 여름날을 기억하며”, 여/성이론(33) 2015, 166-180

· 박윤수 기자, 〈여성학을 비판하는 시선들〉, 여성신문, 2007.7.20.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4)
· 권기석 권중혁 기자, 〈세대별 갈등 요인, 청년 '성(性) 장년 '빈부' 노인 '이념' 꼽아〉, 국민일보, 2018.12.10.
· 이태윤 기자,〈"20대 남성도 약자···성차별 덕 본건 페미니즘 찾는 4050"〉 중앙일보, 2019.01.30.
· 시사인 604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2019.4.16.) / 시사인 605호, 〈우리는 페미니즘과 싸운다〉, (2019.4.23.) / 시사인 606호, 〈20대 남자현상 왜 생겼나〉, (2019.4.30.)
· 박다해 기자, 〈"페미니즘 무장한 20대 여성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한겨레, 2019.2.27.
· 권란 기자,〈민주당, 20대 남성들과 간담회..."역차별 안 돼" 뿔난 남심 달래기〉, SBS 뉴스, 2019.1.30.
· 이지영 기자, 〈하태경 "진선미, 워마드·여가부 둘 중 하나 없애는 결단내려야"〉, 중앙일보, 2019.1.4.
· 박다해 기자, 〈'미투'가 깨운 젠더 감수성…'반쪽'들 변화는 시작됐다〉, 한겨레, 2019.1.30. 김태규 기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성집단 내부고발이 '남페미' 역할"〉 ,투데이신문, 2018.10.27
· 김태규 기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성집단 내부고발이 '남페미' 역할"〉 ,투데이신문, 2018.10.27.



품다

01. 오프닝
연구소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지원센터

활력향연
06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활 력 향 연
2019

. . . .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주소 |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